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8. 11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		조직위원장	고문삼	☎762-3091
		사무국장	허상보	☎762-3091
		기획팀장	송창돈	☎762-3091

2026 제주감귤박람회 D-100·성공 개최 위한 본격 준비 돌입

- 8월 11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서 D-100 제막식 열고 성공 의지 다져 -
- 오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2026 제주감귤박람회 개최 -

-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(위원장 고문삼, 이하 조직위)는 8월 11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‘2026 제주감귤박람회’ D-100 제막식을 열고,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.
- D-100 제막식은 박람회의 공식 홍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, 이날 고문삼 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.
- 참석자들은 박람회 개막일까지 남은 기간을 표시하는 대형 카운트다운 안내판의 막을 걷어내며,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제주 감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.
- ‘2026 제주감귤박람회’는 오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농업생태원 일원에서 “감귤을 품은 제주! 미래를 여는 제주!”를 주제로 개최된다.
- 조직위는 현재 박람회 전 분야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.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농업과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을 비롯해 감귤 가공산업 육성, 학술행사, 수출상담회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.
- 또한 국내 바이어 초청과 참가기업 모집을 추진하고, 문화공

연과 감귤 직거래장,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한다. 이를 통해 산업적 가치와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갖춘 대한민국 대표 감귤 전문 박람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.

□ 고문삼 조직위원장은 “D-100 제막식은 2026 제주감귤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향한 본격적인 출발점”이라며 “제주 감귤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, 감귤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”고 말했다.

○ 이어 “많은 국민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 감귤의 맛과 향을 즐기고, 제주 농업의 미래를 직접 경험하기를 기대한다”고 덧붙였다.

□ 한편 ‘2026 제주감귤박람회’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조직위가 주관한다. 행사 일정과 사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(<https://www.jicexpo.com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